

서천군 로컬푸드 정책 추진방안

/허남혁(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)

1. 정책 동향
2. 서천군 로컬푸드정책 추진경위
3. 현황 및 성과
4. 사업 평가
5. 향후 과제
6. SWOT분석
7. 주요 토의 안건

1. 정책동향

총론

글로벌 식량가격 상승, 구제역 파동 등으로 지역 수준에서 농식품의 생산-소비 관계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

현재의 논의

- 학교급식: 친환경 로컬푸드, 학교급식지원센터 논의
- 사회적기업/CB/마을기업: 로컬푸드 관련 사례들(특히 꾸러미사업의 성공적 안착)

중앙 및 지자체 동향

- 중앙정부: 저탄소 녹색성장, 도농교류, 도시농업, 식생활교육 관련 정책사업
- 지자체
 - 완주 로컬푸드 정책: 지원조례, 지원센터, 건강밥상꾸러미사업
 - 원주 로컬푸드 정책: 지원조례, 원주푸드센터 설립준비
 - 충청남도 로컬푸드 정책: 공약사항, 정책모델연구과제 진행중

해외 동향

- 일본 <6차산업화법>(2010): '지산지소' 의 법제화

2. 서천군 로컬푸드 정책 추진경위

주요 추진경위

- 2007 학습모임/워크숍 운영
- 2008. 9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선정,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
(1단계 사업)
- 2009.3 생산자조합 직매장 개장
- 2009.4 마서동네장터 개장
- 2009.6 지역식량수급조사 보고서 발간
- 2009.9 로컬푸드 사업자 공모(2단계 사업)
- 2010.9 전국포럼 개최
- 2010.12 로컬푸드 지원조례 입법예고준비
 자원조사 보고서 발간

3. 현황 및 성과

조직 및 제도

- 정책기획실 => 올해부터 친환경농림과(농산물마케팅 담당)
- 로컬푸드지원조례 초안마련=>입법예고

사업

- 마서농민장터(마서면, 월2회 개최)의 성공적 안착

성과

- 충남형 사회적기업 2곳 선정
- 지역식량수급조사, 생산자-소비자 자원조사 진행: 전국적 선도사례
- 로컬푸드 전국포럼 개최(2010.9)

4. 사업 평가(서천군 자료)

참여 주민 및 기관 확대 저조

- 관심갖는 주민은 늘고 있으나 직접 참여주민은 여전히 많지 않음
- 기관단체(소비자) 및 생산자조직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여도가 저조

물적,인적역량 부족

- 지역내 물적, 인적 역량의 부족으로 생산 및 소비조직 구성의 어려움 : 특히 기존 생산/유통체계에 익숙한 농민들의 난색

인증체계 부재

- 로컬푸드 인증체계 부재

직접사업 부족

-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접사업의 부족

5. 향후 과제(서천군 자료)

농민장터
지속운영

- 신규 생협매장/농민장터 운영 및 지속가능성 확보

네트워크 구축

- 서천 로컬푸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

인식전환

- 식문화 교육을 통한 윤리적 소비 창출

농업체계
변환

- 생산마인드 제고로 친환경 순환농업체계 구축

참여주체
확대

-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 참여 및 지원

6. SWOT분석

강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군수 및 공무원의 열정과 의지• 서천군의 생태산업/순환경제에 대한 정책의지 및 지원체계 노력• 지역내 귀농자 그룹과 조직의 존재
약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취약한 지역 인적자원 : NGO의 취약
기회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충청남도 광역 로컬푸드 지원정책 활성화• 전세계 식량수급 사정의 악화 및 소비트렌드 변화
위협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관할부서 변경으로 인한 정책적 일관성 혼선• 타 시군의 선도적 정책시행

7. 주요 토의 안건

정책 평가

- 전국적 상황 속에서 서천군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평가

역점 시책

- 향후 과제 토의: 무엇에 역점을 둘 것인가

활동방향

- 서천로컬푸드지원센터/지원사업단의 향후 활동방향
: 유통사업조직인가, 중간지원조직인가(성격의 모호성)

정책대상

-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가치창출형 & 고부가가치 창출 6차산업화형으로 정책대상을 구분할 필요?